장성에 둥지 튼 양변기 부품생산 1위 업체

와토스코리아, 116억 들여 첨단 시설 10일 본격 가동

총자산 563억 연매출 180억…국내시장 점유율 70%

직원 집 마련해주고 퇴직땐 창업 지원 복지혜택 풍부

양변기 부품생산 국내 1위 업체인 와토스코리아가 장성 동화전자농공단지에 116억 원을 투자해 최신식 양변기 부품 전문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은 오는 1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사하면 집과 텃밭을 분양해 주고, 퇴직 전에는 창업을 지원해 주며 자녀에게도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주는 회사가 있다. 양변기 부품생산 국내 1위 업체인 와토스코리아(사장 송공석)가 전남 장성에 둥지를 틀었다.

와토스코리아는 장성 동화전자농공단지에 116억 원을 투자해 대지 3만955㎡(9364평), 건평 1만789㎡(3264평) 규모의 최신식 공장에 양변기 부품 전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오는 10일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회사는 공장 일대 부지에 주택단지를 개발해 직원들에게 분양하고, 전원 생활을 위해 농지도 추가 분양할 예정이다. 또 공장 주변에는 편백나무와 대나무를 심는 등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발전 설비도 갖췄다.

와토스코리아는 양변기와 세면대 등 화장실 위생기에 사용되는 절수형 부품 전문생산업체로 연매출 180억 원대로 국내시장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총자산 563억 원 중 순자산이 505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1.4%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부채비율도 10%를 밑돌 정도로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10년 넘게 무차입경영으로 지난해 기준 유동자산이 350억원에 달한다.

연구개발에도 주력해 수출의 첫 단추인 세계상품코드(UPC) 규격 인증을 비롯, 112건의 국내·외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와토스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90명의 인력을 충원한 뒤 점진적으로 18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인력을 포함해 품질관리, 금형가공, 생산관리, 일반 생산직 등이 새롭게 충원된다.

이 회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 직원이 10년 이상 일을 하고 있고, 퇴직 전에는 관련 분야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송공석(60) 사장은 "장성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1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매년 5~10%의 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60여 협력업체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송 사장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17살에 혈혈단신으로 상경해 맨손으로 성공시대를 열었고, 절수형 양변기 등을 개발해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만 1박2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정원박람회장 연계 가족·단체 예약 접수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한 '순천만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되는 순천만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은 순천만을 배경으로 가족이나 단체 등 모두 30명 이내로 인터넷 예약을 받아 참가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참가자가 늘어날 경우 주1회 운영됐던 체험프로그램을 기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을 추가, 2회로 증설 운영할 방침이다.

순천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1박2일 프로그램에 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해 생태, 문학, 천체, 정원박람회장 스페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층 탐조 투어버스로 '국제행사 체험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이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체류하는 가족단위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봄소식 전하는 '복수초' 입춘(4일)이 이틀 지난 6일 완도군 약산면 가사리 삼문산 자락에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가 언 땅을 뚫고 노란꽃을 피워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복수초는 한자어로 '福壽草'라 해 복을 받고 장수하라는 복담이 깃들어 있는 꽃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나주시 재해예방시설물 사업 조기 추진

생태하천 복원·소하천 정비사업 등 100억원 투입

나주시가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예방시설물 관련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53억 원을 들여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하천 내 인공적인 생태계 교란요인을 제거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해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치수 안전성 확보로 하천재해 예방은 물론, 생활형 레저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활력 넘치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매년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고흥 '힐링캠프' 개강 1년 대장정 돌입

65세 이상 1만여명 참가…건강강좌·봉사 활동 등

고흥군 '2013 힐링캠프'를 지난 5일 개강해 1년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미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고흥군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캠프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까지 따로 운영해오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그 명칭과 내용을 대폭 보강한 '힐링캠프'로 변경한 바 있다. 이 캠프에는 지난달 참가 희망자 접수결과 1만여 명이 신청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 캠프부터는 건강강좌뿐만 아니라, 군정현장 방문, 복지사각지대 봉사, 타 프로그램과 교차 수강, 현장실습 등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보건직 공무원만으로는 사실상 관내 노인인구를 모두 보살피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각 마을에 1명씩'마을건강 지도자'를 양성할 방침"이라며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신안 겨울양파 서릿발 피해 대책 시급

강추위에 뿌리 노출…활착 늦어져 발육 부진

군, 흙 덮기·배수구 정비 등 현장 지도 강화

한파에 의해 뒤늦게 심은 양파포장에서 서릿발 피해가 심해 대책이 시급하다.

신안군은 6일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늦게 심은 양파 포장에서 월동기 서릿발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노출된 양파뿌리에 흙을 덮어주거나 뿌리가 땅에 묻히도록 관리하여 정상생육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서릿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최저온도가 평균 섭씨 영하 4.1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낮게 형성된데다 폭설에 의한 습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올겨울은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양파 포장이 얼었다가 녹는 것이 반복되면서 생육이 부진하거나 심한 경우 고사하고 있다.

폭설로 눈이 녹으면서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 너무 얕게 심었거나 정식시기가 늦어 뿌리 활착이 늦은 포장에서 피해가 극심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한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물 빠짐이 좋게 배수구를 재정비하고, 뽑혀진 양파뿌리에 흙을 넣고 가볍게 눌러줘 새 뿌리가 잘 자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파 포장을 수시로 살펴 솟구쳐 올라온 양파 뿌리가 땅속에 묻히도록 흙을 넣거나 다시 심어 뿌리가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안군에는 1093ha에서 중만생종 양파가 재배되고 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노출된 양파 흙덮기, 배수구 정비, 웃거름을 적기에 줘 정상생육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안 흑산면 영산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선정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가 2013년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신안군은 6일 "영산도는 자연환경, 생태가치, 경관, 친환경 생활양식 등 지역환경 여건과 주민들의 환경보전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환경부 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된 영산도는 천년 석탑 전설과 비류폭포 등 영산 13경으로 유명하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 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푹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 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광고]